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2:17, 엡5:26~2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기

제 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코로나19 관련 3차 대응지침 안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우리 총회의 1차 대응지침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응지침(2020. 01. 30.)”과 2차 대응지침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긴급대응지침 안내(2020. 2. 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2020. 02. 23.)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2020. 2. 25.)”을 우리 총회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도 보다 능동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 방지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코로나 19 대응TFT’를 구성하여 붙임과 코로나19 관련 3차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송부하니, 귀 노회 산하 교회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3차 대응지침에 지 교회가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3차 대응지침 및 관련예배자료 : 총회 홈페이지 new.pck.or.kr 배너 참조)

붙임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코로나19 관련 3차 대응지침(2020.2.26.) 끝.



총 회 장 김 태
서 기 조 재



직원 김영도 실장 윤미경 국장 안영민 사무총장 변창배 서기 조재호

시행 사무국-613 (2020.2.26.)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5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 9215) 전송 02-6008-2982 / spiritinjx@pcknet.org

/ www.pck.or.kr

/ 공개

2020. 2. 26.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3차 교회대응지침

전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고, 전세계 코로나19의 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아래와 같이 3차 대응지침을 안내하니 전국교회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대응 지침

1.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에 본 교단 산하 교회는 3월 1일(주일)과 8일(주일)의 주일예배를 다중의 회합을 피하여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2.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로 드릴 경우에 당회(혹은 제직회)의 결의로 이를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총회 홈페이지의 예배자료와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주일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위생과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4.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성만찬예식은 가급적 드리지 않고, 성가대의 찬양은 중창이나 독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3월 1일(주일)에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하며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대응 지침

1. 본 교단 성도들은 시간을 정하여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조질서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무절제한 생활을 참회하는 기도생활에 힘쓰기 바랍니다.
2. 주중에 제반 교회시설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주일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3. 교회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소그룹 활동, 심방, 상담 등은 감염병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중단하거나 자제합니다.
4. 교회시설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배당에 비치한 성경책, 찬송가, 돋보기 등의 공동물품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방역기관에 소독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이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소외되지 않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대응 지침

1. 총회 예배예식서와 홈페이지의 예배자료를 참고하여 지 교회 상황에 맞는 가정예배자료를 제공합니다.
2. 매주 교인들에게 목회편지를 보내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 방문 심방을 자제하고 전화나 문자 심방을 합니다.
4. 모든 성도가 매일 정오(낮 12시)에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자료를 배포합니다. 총회 홈페이지의 총회장 명의의 기도 요청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교우나 지역사회의 경조사에는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자만 참석합니다.
6. 교회학교 교역자는 교회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예배자료를 제공하고, SNS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합니다.

총회·노회·지교회 회의 대응 지침

1. 불요불급한 회의는 화상회의나 유선회의로 대체하거나 연기 혹은 취소합니다.
2. 중장기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1) 사전에 회의장을 방역하고,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구비합니다.
 - 2) 감기, 코로나19 유사 증상자, 확진환자 발생시설 방문자 등은 회의 참석을 자제합니다.
 - 3) 회의 참석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 조치를 합니다.
 - 4) 회의장 입구에서 참가자의 손 소독을 실시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 5) 회의 진행 중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신천지 대응 지침

1. 교인들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교회 내에 이단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나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회 주변의 신천지 관련시설과 위장단체를 전수 조사하여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3. 낯선 방문객을 안내하는 출입구를 지정하여 1곳만 사용하거나 제한합니다.
4. 교회입구에서 새가족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방문하여 줄 것을 안내합니다.
5. 교리상의 문제로 신천지인의 예배당 출입을 금하는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참고(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1. 신천지에 대한 이단 정의

이만희씨는 1984년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것을 세워 기성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신천지 집단이 결코 그리스도교 교회의 한 종파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본 교단은 그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미 제80회 총회(1995년)에서 이만희씨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이단으로 결의하였습니다.

2.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만희씨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정통교회와는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기에 이단으로 결의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신천지는 이만희를 중심으로 모인 이단집단입니다.

3. 정통교회가 신천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수많은 이단종파들이 현존하고 있으나, 특별히 신천지를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정통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교리적(모략교리: 포섭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와 심지어 가족이라도 속이는 것이 옳다)으로 정당화하고, 기성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빼 나가는 일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치밀하고 기만적인 전략에 교회공동체와 더불어 가정까지 파괴되는 일들이 비밀비재하기에 그 어떤 이단·사이비보다 위험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신천지의 접근방법

신천지의 접근방법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에 가입시킬 대상을 물색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때로는 이웃의 친절을 가장하여(예를 들어, 이삿짐을 날라주거나,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것과 같은 일들을 통해) 인간관계를 쌓거나, 새롭게 출석할 교회를 찾는 신자인 것처럼 정통교인에게 접근하여 함께 교회를 출석하며 친분관계를 형성합니다. 가끔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다른 교회의 직분자 중에 기도의 영험이 있는 분을 소개시켜 준다는 식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위장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성도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헌혈하기, 태극기 손도장 찍기, 불우이웃돕기, 북한 어린이 돕기, 김치 담가 주기, 쌀 모으기, 폐옷 수거, 우유팩 수거, 각종 설문조사나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또 위장교회와 기도원을 세워 성도를 미혹하는데, 심지어 기성교회나 기도원을 빌려서 말씀집회, 신유은사집회, 찬양집회 등을 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각종 문화행사와 미술심리치료, 도형분석, 치료 상담 강좌 등과 위장 카페를 설립하여 성도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헌혈동아리, 취업 및 자기 계발 동아리, 맛집 동아리, 봉사활동 동아리, 영어학술동아리 등 위장 동아리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미혹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5. 대처방안

① 바른 '교리교육'에 힘써 주십시오.

본 교단총회에서 제공한 지난 자료집들과 총회 주체의 세미나 자료들이 총회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니 철저하게 숙지 활용하여 바른 교리교육에 힘써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든 정통 구원론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② 이단·사이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경계심을 가져 주십시오.

목회자는 이단·사이비 예방 교육에 힘쓰고 동시에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은지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두루 살펴야 합니다.

③ 성도들이 절대로 교회 밖에서 개별적 성경공부를 하지 않도록 힘써 지도해야 합니다.

④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정체불명의 설문지 조사 등에 응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굳센 신앙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시대의 어려운 유혹과 시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